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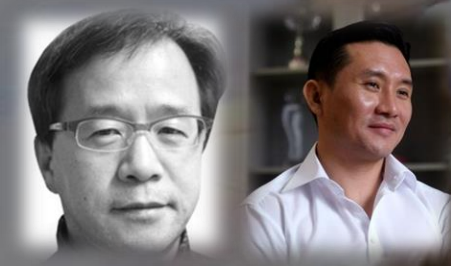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39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전문가 칼럼



정운수 스포츠평론가·성공회대 교수

◎ 선수들의 입을 막는 ‘끈대 문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정규영 사단법인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공선운학)’ 회장

◎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 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일반 학생이 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하며 국가대표가 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야..”

인권침해, 비리,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100일...조사권 한계 넘는 방안 검토 필요”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내용 DB화...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울산동구체육시설노조, 스포츠윤리센터서 ‘성추행 가해자 제명’ 촉구”

“평창 여자컬링 ‘팀킴’ 사태 일으킨 김경두·장반석 ‘차격정지 3년’”

“OK금융그룹 고의패배 지시 의혹, 스포츠윤리센터도 조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스포츠평론가,
성공회대 교수 2020.11.12
정윤수

선수들의 입을 막는 ‘꼰대 문화’

‘꼰대 아재’들은 쉽게들 말한다.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옛날에는 더 심했다”고, 그런 ‘꼰대 아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저녁 점호하고 청소 검사를 받을 때 몸을 살짝 밀면서 지적을 해요. 군기를 잡으려는 것 같아요. 인원 보고는 하루 네 번 하는데, 모두 총장, 총총장, 사감 등에게 보고해야 해요. 일반 학교 기숙사 친구들이 ‘너희는 군대나 교도소에서 사는 것 같아’라고 해요”

체육고등학교 육상부 2학년생의 말이다. 다름 아닌 2019년의 증언!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7개 학교, 비수도권 9개 학교,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3곳 등 총 16개 학교를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록한 것이다. 지금의 중고교 학생들이면 21세기에 태어났고 큰 탈 없으면 22세기도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훈육과 질서는 반세기도 전인 20세기 중엽의 것이고 그들이 암기해야 할 체육의 가치는 무려 1세기도 전인 19세기의 국가주의다. 같은 학교 3학년생의 증언이다.

“온종일 공부하고 운동하고 돌아와 편히 쉬고 싶은데, 여기는 쉬는 곳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데 같아요.”

나는 평소에 우리의 스포츠 문화가 선수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랬더니, 어떤 논평가가 “현장을 잘 모르시나본데” 하면서 선수들이 의외로 말을 잘한다,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인터뷰도 잘한다고 내게 말했다. 물론 동의한다. 인기 예능 프로 <몽쳐야 찬다>를 봐도 알 수 있다. 일상 대화는 다들 잘하는 편이고, 설령 과묵하거나 어눌하다고 해서 그것이 왜 문제이겠는가.

다음 장 계속

내가 말하는 ‘말’은 능란한 화술이나 재치 있는 농담이 아니다. 어느 비운의 정치인이 말했듯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화술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살아온 삶의 밑천을 가지고 증명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허락되고 있는가. 과연 선수들이 자유롭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선수들이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은, 화술이 떨어진다는 식의 낱아빠진 관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는 가까운 지도자나 선배들에 의하여, 제도적으로는 ‘말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우리 스포츠의 훈육적 질서에 의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해왔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타당한 의견과 온당한 권리를 말하는 데 있어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선수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은, 그 무슨 스피치 요령이나 인터뷰 기술을 배워 달변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살펴보자.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중고교에 4만 7000여 학생선수가 있고 그중 20%에 달하는 1만여명이 합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대체로 한 방에서 7명 이상 생활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한 방에서 10명 이상이 생활한다. 어느 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은 전체 25명이 1층과 2층에서 생활하는데 각 층은 방이 따로 없고 전체가 트여 있다. 어느 축구 명문 고교도 10인실 1개, 7인실 3개, 6인실 2개에서 생활한다.

폭력의 상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인권위 조사에서도 폭력과 성폭력이 보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폭력이 없다 해도 이러한 시공간의 ‘보이지 않는 작동’은 개선해야 한다. 점호 시행, 인원 파악, 청소 검사 등 병영적 규율과 문화가 일상 아니겠는가. 운동에 소질이 있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가족과 학교로부터 벗어난 아이들은, 2019년 현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성장기의 10여년을 ‘개인’이나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된 공간에서 보내고 있다. 그 시공간을 지탱케 하는 언어, 규범, 문화 자체가 문제적이다.

‘우리 때는 말도 못해요. 요즘은 정말 많이 나아졌지’라고 말하는 자들이여. 낯은 생각 바꾸는데 1분이면 충분하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합숙소 앞에 멈춰선 인권’을 읽어보라. 읽다 말고, 한숨 몇 번 쉬게 될 것이다. 4차산업 정보화 시대요, 올림픽 10위권이라는 나라에서, 1만여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20세기 중엽의 시공간에서 살고 있다.



(사)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 / 정규영 회장 2020.11.11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 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 단체들, 즉 체육 종목별 협회나 연맹들은 소수 엘리트 운동선수들만이 아닌 국민 생활체육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우선 종목별로 시종마다 존재하는 대통령배, 장관배, 협회장배, 국가대표 선발전, 동호인대회 등 많은 대회들의 출전 자격을 연령별로만 구별하되 누구나 출전할 수 있는 대회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든 운동에 소질이 있는 일반 학교의 어느 학생 선수든, 외국에서 참가하는 외국인이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대회에서 실력만으로 등수별 점수를 얻어 국가대표가 돼야 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공부 양이 많은 의대생이라도 꾸준히 실력을 쌓아 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와 같은 대회에 출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생활체육이 자리잡을 수 있다.

물론 월할한 대회 진행을 위해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 과거 대회 참가를 통해 획득한 점수로 실력 등급을 나눠 대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 선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대회'는 상업적인 프로스포츠 리그를 제외하고는 대중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 이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더욱 갈라 놓는다.

해마다 수천, 수억, 수십억원의 예산으로 종목별 엘리트 선수들은 해외 전지훈련이나 국제대회에 참가한다. 앞서 언급한 그 수많은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는 없다. 현재 국내 종목별 협회 또는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은 동호인 대회를 제외하고 협회나 연맹이 인정한 학교 또는 실업팀 소속의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다. 우리들의 대회가 아니라 엘리트 선수 그들만의 대회인 것이다.

다음 장 계속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외국 선수들이 찾아오는 국내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종목별 대회는 단체 구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도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다. 대회 결과 등수별로 미국인들과 같은 점수를 획득하지만 국가대표 자격은 당연히 얻을 수 없을 뿐이다. 그런 개방성으로 해외의 많은 선수들이 미국 내 대회에 참가한다. 이 많은 국내외 참가자들과 일반 대중의 높은 관심 덕분에 종목별 단체들은 운영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협회장이나 소수 대기업의 후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도 않는다.

종목별 협회나 연맹 산하 단체로 존재하는 대학 연맹, 중고 연맹 등의 단체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주최 대회들을 개방해야 한다.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생은 오히려 대회 참가를 제도적 기준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 또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학생은 수학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처럼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면 과학 발명 대회, 토론 대회, 영어 글짓기 대회들 만큼 관심을 받을 것이며 생활체육이 자연스레 학생 선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 은퇴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목별 단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은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체육을 교육의 중요한 과목으로 인정하는 사회의 인식이 형성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상아탑인 대학들이 체육을 수학과목과 같이 입시에 반영하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한 학생선수들로 학교 운동부를 구성해야 한다.

미국 예일대 학생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졸업한 뒤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엘리트 운동 선수가 아닌 지방의 일반 학생이 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하며 국가대표가 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정착돼야 한다. 체육 전문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지방의 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한 일반 학생이 국가대표가 되고, 운동을 매우 잘하는 법대생이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한 뒤 졸업해 인권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자주 접해야만 지역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이 건강하게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종목별 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100일... 조사권 한계 넘는 방안 검토 필요

스포츠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3일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247건의 신고상담을 접수했고 현장 조사 21회, 사건 조사 32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월 조재범 코치 사건 등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설립 논의가 시작됐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스포츠인권전담기구 설치 권고에 따라 지난 8월 출범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이 만들어졌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 내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 대한체육회의 클린 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 등이 모두 통합됐다.

이숙인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출범 100일을 맞는 소감에 대해 “윤리센터 이사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스포츠계 관련 여러 사안들이 중대하고 심각한 것과 더불어 굉장히 구조적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스포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현실의 내밀한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다는 한계도 잘 알고 있다. 주변의 전문가, 직원들의 목소리 잘 들으면서 이런 부분 보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8월 개정된 법률이 내년 2월 발효될 때까지는 신고 접수된 사안들에 대한 조사할 수 있다. 윤리센터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만 있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이사장은 “조사권만 갖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강하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및 상담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쌓고, 이를 정밀 분석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다. 지도자 등의 징계 이력 역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국 3개소에 거점을 마련해 피해자 신고 및 상담, 교육 등을 원활하게 할 계획도 세웠다.

이 이사장은 “출범 후 과거 여러 곳에서 한 스포츠계 인권 관련 실태 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센터 운영이 계속되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보다 현장에 밀착되고, 현장이 잘 드러나는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oda@kyunghyang.com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내용 DB화...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 접수 내용을 데이터로 구축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이사장은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출범 100일 동안 총 247건의 신고 상담을 접수했고,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21회, 조직 사유화 승부 조작 등 스포츠 비리와 관련한 사건 조사를 32건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고 상담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 종목별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한 DB화 과정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하진 못하겠지만, 체육계 실태를 파악하고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육계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지도자 등의 징계 이력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해 관리한다.

이숙진 이사장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는 징계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스포츠윤리센터도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독립 법인이다.

지난해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고,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체육계로부터 분리된 스포츠 인권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지난 8월 출범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고의 패배 지시 논란에 관해 "개념 정의를 법률적으로 다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매체는 OK금융그룹 구단주가 단장에게 고의 패배를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런 지시가 팀 리빌딩 차원에서 진행되는 탱킹(일부러 낮은 순위를 기록해 신인드래프트 등에서 좋은 순번을 얻는 전략)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승부 조작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cyde@ynacokr



울산동구체육시설 노조, 스포츠윤리센터서 '성추행 가해자 제명' 촉구

울산 동구청체육시설 노조가 성폭력 논란의 최해봉 동구체육회장 처벌을 요구하며 스포츠윤리위원회 상경투쟁에 나섰다.

14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첫 회의에 맞춰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난 8월 5일 설립됐지만 정작 가해자를 조사·처벌할 수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사건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하도록 해 직접 수사하고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동구청체육시설노조 역시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성폭력과 직장괴롭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심의위원회 출입을 통제하고 비공개로 진행해 피해 당사자의 진술권 보장은 커녕 동구체육회장 안건이 다뤄지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 당시 '체육계 내 피해발생 시, 신고인을 비롯한 피해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사장의 말을 믿고 찾았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2, 3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사법 경찰의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성폭력 피해 조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최해봉 울산동구체육회장을 제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kky060@news1.kr



평창 여자컬링 '팀킴' 사태 일으킨 김경두·장반석 중징계 '자격정지 3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일궈낸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팀킴)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일가에 대해 중징계가 떨어졌다.

경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회장과 그의 사위 장반석 전 평창올림픽 컬링 혼성팀 감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 전 부회장의 딸 김민정 전 평창올림픽 컬링 여자 감독에겐 자격정지 1년, 김 전 부회장의 배우자에게는 견책 조치를 각각 취했다.

경북도체육회는 "이번 징계위 결과는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경 언니' 김은정을 비롯해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로 구성된 여자컬링 '팀킴' 선수들은 2018년 11월 김 전 감독과 김 감독의 아버지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에 문체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특별감사 결과, 김 전 부회장 등이 각종 인권침해, 친인척 채용비리, 지원금 정산 부적정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경북도체육회에 통보했다.

문체부는 김 전 부회장 아들이 경북도체육회 소속 직장경기운동부 컬링팀 선수로, 조카가 컬링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취업한 것을 친인척 특혜 채용으로 봤다.

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김 전 부회장과 장 전 감독이 재판 중이어서 결과를 보고 징계위를 열려고 했으나,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번에 이들의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jins@yeongnam.com



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2020.11.13

OK금융그룹 고의패배 지시 의혹, 스포츠윤리센터도 조사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도 OK저축은행(현 OK금융그룹)의 고의패배 지시 의혹을 조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3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 2일부터 출범 100일 동안 총 247건의 신고 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신고는 인권침해 25건, 조직사유화와 횡령·배임, 승부조작, 입시비리 등 비리 42건이다. 상담 역시 인권침해가 16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승부조작 등 비리와 관련해서도 12건이 진행됐다.

승부조작과 관련한 신고 접수는 1건으로 지난 6일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2018~2019시즌 V-리그 남자부 6라운드에서 발생한 OK금융그룹의 고의패배 지시 의혹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8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가 다시 해당 내용을 조사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의 고의패배 지시 관련 접수는 현재 조사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해외 사례 등을 살폈다.

센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OK금융그룹의 고의패배 지시 의혹은) 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판단해 추가 조사 및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며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처리 및 조치 결과가 가져오는 파장이 있는 만큼 신고 사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ohwwho@dbs.co.kr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 체육시민연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연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체육시민연대 활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됩니다.**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 바랍니다.**

국민은행 086601-04-095940

예금주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